

##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이은애(이화여대)

### 1.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계속되는 자연 재해와 전쟁 등의 위협 속에서 전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는 죽음이 배제된 사회이며 죽어가는 사람은 일상과 격리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이란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관념적, 물리적으로 죽음을 유예시키며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안티에이징 기술의 발달 또한 인간의 유한성 주제를 담론 밖으로 밀어내는 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7078)

인이기도 한 것이다.<sup>1</sup> 죽음을 은폐하고 배제하는 담론은 죽음을 의료화하고 산업화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비가시적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 죽음 배제와 유예 담론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현 지구적 상황은 죽음 자체가 인생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인간 존재 누구에게나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인간은 현재 삶의 의미를 질문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 가치에 대해 허무와 회의를 가짐과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과 애착을 느끼게 된다. 평등하고 필연적인 죽음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현재 삶이 여전히 가치있고 잘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세 후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죽음의 무도’는 ‘죽게될 것을 기억하라’(memento mori)와 ‘만인 평등의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시각화한 것으로 그 안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하여 더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절망적인 암흑기이며 쇠락의 시기로 간주되던 중세 후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죽음의 공포가 만연했으며 편재하는 죽음 앞에서 위령미사, 최후심판, 연옥, 왕생법, 현세의 덧없음, 미래 구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sup>2</sup> 특히 이 시기의 죽음 이해는 바니타스(vanitas), 즉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발전하며 구약성서의 본문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12:8)<sup>3</sup>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사회적 위치와 세속적 권력, 모든 지식과 부는 죽

1 안선희, “장례의식을 넘어 죽음의례로”, 『신학과 실천』 63 (2019), 9-10.

2 김준현, “기요 마르샹의 ‘죽음의 무도’ 연구: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0 (2013), 36.

3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הֶבֶל)은 ‘하찮다, 부조리하다, 무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분명히 경멸의 의미로 사용된다. 롤랜드 E. 퍼피, 『전도서』 (김귀탁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8), 121.

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죽음의 필연성과 인생의 헛됨에 관한 주제는 특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초기 헬레니즘 사회에서 형성된 전도서에 나타나는데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생각과 결론이 형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와 사회적 환경과 사상이 기존의 전통 지혜에 영향을 주어 변화된 죽음이해를 가져오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다층적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죽음 자체와, 죽음을 앞둔 인간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있고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약성서 전도서의 ‘헤벨’을 통한 죽음 이해와 중세 유럽의 죽음의 마카브르 현상을 통한 죽음 이해가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다른 표현 방법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그동안 죽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종교, 철학, 역사, 미술사 등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으로서 종교적 텍스트와의 상관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 문학, 예술 등 문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학문 융합적, 통섭적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4</sup> 그러나 사람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실적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긴밀한 상관성 속에 놓여있다. 그것은 마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승되고 수용되며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에서도 성서의 내용을 이미지로 해석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 성서와 예술 작품을 함께 읽어

---

4 최근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즉 학문들 간 상호교류의 경향에 따라 성서학도 다른 학문적 영역, 특히 인문 예술학의 영역과의 통섭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양재훈, “소통과 융합시대의 성서학과 문화-문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서학”, 『Canon & Culture』 7 (2013년 4월), 63-101.

서로 교차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읽는, 이른바 ‘성서의 시각적 읽기’가 행해지고<sup>5</sup> 신·구약 성서 본문들 사이의 본문상호적해석, 그리고 성서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 작가들의 미술작품에 대한 도상학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성서본문을 해석하는 연구들<sup>6</sup>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와 근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함께 다양한 예술의 표현방식을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죽음을 대하는 인간과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 2.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미술을 개념을 전달하는 언어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해석자에게 인지되도록 하는 무언의 계시자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미술은 즉시적 직관이라는 논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sup> 때로 종교적 상징과 예술은 언

- 
- 5 김학철,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서울: 비아, 2022), 19.
- 6 김진명, “은보 김기창의 <물 위를 건다>와 성경본문의 미학적 성서해석: 마 14:22-33, 출 3:14, 시 2:7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39집, 269-294; 김진명, “구약과 신약의 만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기(마 2:1-23)에 관한 연구: 이연호의 작품 <베들레헴 위 헤롯 군인들의 군화...>(1962)와 신약(마 2장)과 구약 본문들(미 5:2, 삼하 5:2, 호 11:1, 렘 31:15)에 관한 미학적 성서해석”, 『선교와 신학』 63 (2024), 141-169.
- 7 테오 순더마이어, 「미술과 신학」 (채수일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10. 원제는 Theo Sundermeier, *Christliche Kunst – weltweit. Eine Einführung* (Frankfurt: Otto

어적 텍스트에 기초하고 있는 신학의 개념적 사유를 넘어서서 인간의 의식과 자유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계시를 발견하게 한다.<sup>8</sup>

얀 아스만(Jan Assmann)의 ‘문화적 기억’<sup>9</sup> 개념은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에 의해 확장되었는데 그 특징 중에는 ‘매체성’이 포함되어 있다.<sup>10</sup> 이것은 문화적 기억이 세대와 세대, 문화권과 문화권을 연결하는 매체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문화적 기억이 매체에 담기거나 고정되어 보존되거나 전달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sup>11</sup> 어느 한 세대나 문화권의 경험은 문화적 기억이라는 매체를 통해 저장되고 보존되어 그 의미와 정서를 다음 세대로,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한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변화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한 죽음에 대한 기억이 ‘문화적 기억’이 되어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고정되고 보존되며 반복되면서 전달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한편 중세라는 특정한 시기에 유럽 사회라는 문화권 속에서 죽음에 대한 기억은 ‘죽음의 마카브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존되고 전달

---

Lembeck, 2007).

- 8 리차드 빌라데서,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손호현 옮김),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2001), 55. 원제는 Richard Viladesau, *Theological Aesthetics -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9 얀 아스만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기억같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을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켰다. 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H. Beck, 2007<sup>6</sup>).
- 10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변학수, 채연숙 옮김), (그린비, 2014), 원제는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 der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2010<sup>5</sup>), 2-23.
- 11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2021년 6월), 83-84.
- 12 구약성서 텍스트는 죽음 전승을 소유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별한 기억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애, “히브리 성서에서의 죽음과 장례: 존재와 관계에 대한 기억”, 『구약논단』 22권 2호 (2016년 06월), 137.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텍스트의 언술 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역동적으로 수용되고 변형된다는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텍스트나 중세시대 ‘죽음의 마카브르’ 이미지와 같은 형식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며 주관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감의 매체라는 것이다. 문학이나 예술 등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매체성’은 텍스트와 그림이라는 매체 형식들 사이의 독립성 뿐 만 아니라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3</sup>

죽음에 대한 경험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역사적, 문학적 텍스트와 예술적 작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전승되고 변형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집단적 기억을 전승하는 상징적인 매체로서 구약성서의 텍스트는 또 다른 시대인 즉 중세 사회의 문화적 흐름으로서 ‘죽음의 마카브르’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기억은 이와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대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을 연결하며 ‘죽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고 전승하고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 본문에 나타난 죽음 이해와 ‘죽음의 마카브르’ 그림들에서 나타난 죽음 이해를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두 매체 사이의 독립성과 연

---

13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in: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내러티브와 매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15-16. 이은애, “입다의 딸과 이피게네이아: 상호매체성으로 읽는 소녀의 희생”, 「구약논단」 28권 4호 (2022년 12월), 164.

관성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문화적 기억으로 어떻게 전승되어왔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 3. 전도서의 ‘헤벨’(hebel)과 죽음 이해: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

#### 1)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다’

개역개정 한글성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헤벨(הֶבֶל)’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기는 어렵다.<sup>14</sup> 대체로 불합리, 수수께끼, 이해할 수 없음 등의 추상적 의미로 해석하거나 문맥에 맞게 공허, 덧없음, 좌절, 아무것도 아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여 번역하거나 또는 수증기, 숨이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도출된 덧없음, 일시적임, 실체가 없음, 좌절, 무가치 등 은유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5</sup>

헤벨로 표현되는 전도서의 사상은 죽음으로 인한 삶의 허무함과 동시에 현재적 삶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프란츠 쿠체라(Franz Kutschera)는 ‘죽음을 직면한 채 살아가는 삶’으로 규정짓는다.<sup>16</sup> 책의 처음과 끝에 외곽적인 틀을 이루며 ‘모든 것이 헛되다’(전 1:2; 12:8)고 선언하는 전도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영원성과 인간의 쇠락함을 대조시킴으로써(전 1:3-11; 11:9-12:7) 인간의 유한함과 그

14 전도서에서 38번이나 사용되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단어로 볼 수 있으며 70인역에서는 *ματαιότης* 불가타역에서는 *vanitas*로 번역됨으로써 이후 주로 ‘헛되다’(vanity)는 단어로 번역된다. 롤랜드 E. 머피, 윗글, 120.

15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5 (2018), 41-42.

16 F. Kutschera, “Kohélet: Leben im Angesicht des Todes”, in: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 *Das Buch Kohé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구자용,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구약논단』 18권 1호 (2012년 3월), 84-85에서 재인용.

한계를 보여준다.<sup>17</sup> 인간의 유한성은 노화와 죽음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한 인간의 청년의 때에 그에게 닥칠 ‘곤고한 날(개역)/고생스러운 날들(새번역)’,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개역)/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새번역)’에 대해 경고한다(전 12:1).<sup>18</sup> 노년에 대해 묘사하는 전도서 12:3-7에서 ‘그 날’(바움, מִיּוֹם)은 ‘청년의 때’(전 12:1)와는 반대되는 ‘어둠’(전 12:2)의 때로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노년의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상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19</sup> 즉 노년의 팔이나 손(‘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리(‘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눈(‘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치아(‘뺏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뿐만 아니라 귀, 목소리, 머리카락, 자세, 피부에 나타나는 육체적 쇠퇴 또는 상실의 특징을 풍유적 접근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몸의 떨림, 구부러짐, 활동 정지, 어두워짐, 단힘, 침묵, 두려움과 절망은 노년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결국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전 12:7)만을 기다리게 되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머피(R. E. Murphy)는 이 운명의 날을 창세기 3장 19절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인간 삶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분해이며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왔던 곳, 즉 흙으로

17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헤벨’임을 선언함으로써 전도서의 저자는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하나님 경외를 일깨우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2월), 43.

18 전도서 12장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앞에서 ‘젊음을 누리라’(전 11:7-8)와 ‘젊음은 헛되다’(전 11:9-10)라는 주제와 내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전도서』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09 이하.

19 롤랜드 E. 머피, 『전도서』 (김귀탁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303.

돌아간다는 것이다.<sup>20</sup>

사실 죽음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포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하כל, כָּל)은 우주적 범주가 아니라 기쁨, 인간의 활동, 지혜, 일, 부 등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세상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필연적인 것으로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죽을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기억되지 못하며 잊혀질 것이고 또한 죽을 것(전 2:16)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의인의 이름이 칭찬받으며 기억될 것이라는 지혜(잠 10:7)도 거부된다. 인간이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짐승과 마찬가지인데 인간과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루아흐(רוּחַ, 영, 생기)로 이루어져 있고(시 104:29-30) 동일한 호흡을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다(전 3:19-20). 인간과 짐승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이야기(창 2:4 이하)를, 그리고 인간과 짐승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타락이야기의 결과(창 3:19)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도자는 인간이 죽는 이유를 인간의 죄악성에서 찾고 있지만(전 9:3) 도덕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보다는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은 죽음의 길을 우매한 자들의 몫으로 간주하였으나(잠 2:18; 5:5; 7:29) 전도자는 죽음을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

20 윗글, 306. 히브리 성서는 떠남, 이동, 잠, 쉬, 종결 등의 은유를 통해 죽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완곡어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함을 완화시키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김동혁,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어법과 위약어법 연구: ‘죽음’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3호 (2024년 9월), 115.

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하나님은 개인적 행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같은 운명을 부여하고 결국 죽음은 인생의 헤벨, 즉 헛됨, 불합리함, 무가치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전도서의 코헬렛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면 인생의 '여기와 지금(here and now)'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저 세상으로의 도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관심하고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전도서 9:1-6은 죽음 앞의 삶에 대해 다루면서 지혜자들과 의인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전 9:1b)는 지혜 일반의 인과응보적 원칙을 부인하며 산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전 9:4) 기대 또한 부인하고 오히려 산자들은 죽는다는 사실만 분명히 안다(전 9:5-6)고 함으로써 죽음 이후의 불확실한 데서 눈을 돌려 죽음 이전의 삶에 관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 2)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

전도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서 안에서는 여러 번 죽음에 대한 단상을 만날 수 있는데(전 3:16-22; 4:1-3; 5:15-16; 6:3-6; 12:1-7) 전도서가 말하는 죽음은 질병, 재해, 전쟁 등으로 뜻밖에 당하는 사망이 아니라 대체로 '자연적인 죽음'이다. 즉, 때가 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전 3:20) 혼은 위로

21 롤랜드 E. 머피, 윗글, 262.

22 Michael V. Fox, "The Meaning of Hebel for Qohelet", JBL 105/3 (1986), 425.

23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도서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권 3호 (2010년 9월), 210.

24 윗글, 195-201.

올라가는(전 3:21) 죽음인 것이다.<sup>25</sup>

전도서 안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접 ‘헤벨’과 함께 나타나는 곳은 전도서 2장이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지혜자와 우매자도 죽고 그렇기에 사는 동안 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선언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렐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 2:16-17, 개역개정)

이 구절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시작하는 단락의 결론으로 지혜의 무력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지혜는 죽음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지혜는 ‘헤벨’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다(전 2:17).<sup>26</sup> 그 죽음은 전도서 2장 14절에서는 ‘모두 당할 일(미크레, מִיְקָרֵי)’로 표현되어 있다. 미크레는 본래 ‘몹, 운명’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키지만 이 본문에서는 최후의 운명, 곧 죽음을 의미한다(전 2:15, 3:19; 9:2-3). 이것으로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문학에서 주장해온 지혜의 우월성을 수정하고 상대화시키면서<sup>27</sup> 동시에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나타낸다. 죽음은 지혜자와 우매자뿐만 아니라 짐승(전 3:18-19)에게도 해당되며, 의인과 악인(전 3:15), 권세잡은 자나 학대받는 자(전 4:1-3), 가난한 자나 왕(전 4:13-16), 부유한 자(전

25 왕대일,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256-257.

26 롤랜드 E. 머피, 윗글, 147.

27 윗글, 148-149.

5:10 이하), 자녀가 많은 사람이나 장수한 사람(전 6:3 이하), 악인들과 의인들(전 8:10 이하) 등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다.

사람은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기 때문에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전 2:17)고 말한다.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표준새번역)는 선언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시한부 인생으로서의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sup>28</sup> 죽음은 생명의 정지일 뿐만 아니라 기억의 소멸이기도 하다. 지혜자든지 우매자든지 죽은 이후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명성과 재산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수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다(전 2:18-23).

전도서 9:2-3에서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도서 8장에서 지혜문학의 보편적인 원칙인 보상신학, 인과응보가 세상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전도서 9장에서는 세상에는 그래도 공평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모두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

28 H. 링그렌/W. 침멀리, 「잠언/전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253-254. 원제는 H. Ringgren, /W. Zimmerli, Sprücher/ Predig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전 9:2-3, 개역 개정)

전도서 9장 2절의 처음 세 히브리어 단어(תָּכַל כְּאִשֶּׁר לְכֹל, 하콜 카 아셰르 라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모든 사람이 당할 일, 똑같은 ‘몫’(미크레, 전 2:14-17; 3:19-21), 즉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up>29</sup> 그 몫은 사람의 종교적, 윤리적인 삶과는 관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고 평등하다.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죽음의 길을 우매자의 몫으로 간주하였으나(잠 2:18; 5:5; 7:29) 전도자는 죽음이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몫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전 9:3b).<sup>30</sup>

도덕적인 기준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죽음의 보편성은 고대 근동 다른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아카드의 지혜 문학인 ‘주인과 종의 대화’는 주인이 정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종이 여러 속담과 격언을 이용하여 대답하는 대화와 논쟁의 형태를<sup>31</sup> 통해 삶을 관조한다. “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주인의 말에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마소서, 내 주여, 하지마소서. 옛 성읍의 폐허에 올라 걸어 다녀 보소서: 이전 (사람들의) 뼈를 보소서; (그들 중) 누가 악한 자이며 누가 선을 행한 자이니까?”<sup>32</sup> 전통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기

29 롤랜드 E. 머피, 윗글, 261-262.

30 윗글, 262. 최종원은 전도서의 ‘미크레’ 개념이 ‘하나님 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인과응보’ 지혜 사상을 대항하여 새롭게 발전된 것으로 이해한다. 최종원, “복서 셈어문학과 비제사장계 문학사 관점에서 바라본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30권 1호 (2024년 3월), 228.

31 윤성덕, “고대 서아시아 지혜문학의 분류법: 〈주인과 종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69 (2024), 20-24.

32 제임스 B. 프리처드 편집,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번역), (서울: CLC, 2016),

준, 즉 선함과 깨끗함과 제사드리는 것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 3) 전도서의 시대와 죽음 이해의 변화

전도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험과 연대적 책임성 대신에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중요시 하며 죽음을 인간의 비극적 운명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전통적 지혜나 사상에서 벗어나고 헬레니즘과 만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도서의 형성시기를 프톨레미 왕조시대로 추정하게 한다.<sup>33</sup> 이전의 히브리 사상을 넘어서는 전도서의 반전통주의가 직접적으로 혹은 유일하게 헬레니즘의 회의주의적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sup>34</sup>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 야웨 사상에 근거해 있으면서도 당시 새로운 헬라 사상의 비판과 회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가 처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통 지혜와 헬레니즘의 정신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전도서의 저자는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새로운 지식과 사상들에 개방적이었으며 그리스 철학의 회의주의적 경향을 수용하고 적용하여 전통적인 신앙과 지혜를 비판하고 회의하며 해체한다. 이러한 개방성

---

671. 원제는 James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 – An Anthology of Texts & Pictur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33 Martin Hengel, 「유대교와 헬레니즘 ②: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헬레니즘 만남 연구」, 박정수 옮김 (과주: 나남, 2012), 38. 원제는 Martin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 bis zur Mitte* (Tübingen: Mohr Siebeck GmbH & Co., 1988 [3., durchgesehene Auflage]). 안근조, “헬레니즘 시대의 지혜의 변천-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3호 (2015년 9월), 108.

34 전도서의 반전통주의적, 회의주의적 목소리는 히브리 고유의 사상이 아니라 이방적 요소로서 고대 이스라엘 시기로부터 문화적 교류를 가져온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윗글, 118.

35 윗글, 113.

과 수용성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히브리 지혜의 특징에 근거하며 야웨신앙의 뿌리 안에서 이스라엘 만의 독자적인 지혜의 길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에 영향을 끼쳐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운명에 근거한 회의주의적, 허무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며 동시에 현재적 삶을 즐기라는 교훈과 경고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헛됨을 인식하게 된 것은 오히려 생명을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전통 지혜와 새로운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હે벨'(허무함)을 말하고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한편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기대와 희망을 묘사하는 것이라고<sup>37</sup>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현재와의 단절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sup>38</sup>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인식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유이다.

전도서에서 삶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몫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전 9:6)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전 5:18-20).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죽음'이라는 현실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전도서

36 롤랜드 E. 머피, 윗글, 98.

37 박영준, "전도서의 종말론적 개념에 대한 연구: 추가본문의 미쉬파트(심판)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1호 (2012년 3월), 120-122.

38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27권 3호 (2021년 9월), 86-87.

39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390-391. 원제는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전체에서 ‘헤벨’이라는 주제는 기쁨이 가능하고 또 선한 것이라는 주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헤벨’은 ‘하나님 경외’라는 두 가지 주제와 한데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sup>40</sup> 배정훈은 전도서의 가르침을 ‘전통적인 지혜를 대체하는 수정된 지혜’<sup>41</sup>로 명명한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과 연약함의 그림자 아래에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지혜이다.<sup>42</sup> 전도서의 목표는 모든 것의 ‘헤벨’을 통해 회의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가 수정된 잠정적인 지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시도’<sup>43</sup>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도서에서 ‘헤벨’(헛되다)의 근거로 나타나는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과거와 현재, 전통과 새로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중세 말기 격동하는 유럽 사회에서 죽음의 마카브르 현상에도 받아들여지고 적용된 것이다. 죽음의 마카브르에 대한 전도서의 헤벨의 영향은 죽음 앞에서 죽음 전에 주어진 삶의 몫에 대해 감사하고 누리라는 전도서 본래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40 윗글, 391-393.

41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2월), 26.

42 윗글, 26-27.

43 윗글, 27.

## 4. 중세 유럽의 ‘죽음의 마카브르(macabre)’

### 1) ‘죽음의 무도’(dance with death)

중세 말기의 죽음을 형상화한 그림들은 그 시대 유럽에서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산자들의 세계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죽음의 무도’로 대표되는 ‘죽음의 마카브르’(macabre)는 중세 말 한 시대 전체의 사고를 표현한다고도 주장되었는데<sup>44</sup> 그림에 나타나는 죽음 모티브는 이미 12-13세기에 시작되었고 14세기부터 수세기 동안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의 창궐을 배경으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마카베르(makaber)라는 독일어 단어는 ‘섬뜩한, 소름끼치는, 으스스한’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그와 결부된 죽음에 관한 표상들은 이미 중세 때부터 전 유럽에 퍼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와 관련하여 마카브르 예술이란 인간의 임종과 죽음에 관련된 그림과 텍스트를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해골, 시체, 무덤 등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들을 가리킨다. 마카브르 예술은 죽음에 혐오를 느끼면서도 죽은 자, 즉 사자(死者)를 숭배하고 달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중세 유럽에서 춤은 인간의 음란과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춤추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죽음과의 춤은 현세적 삶의 무상함을 나타내고 죽음을 경고하며 죽음 이후의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죽음은 이제 의인화되

44 요한 호이징가, 「중세의 가을」(최홍숙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174. 원제는 Johan Huizinga, *Herbst des Mittelalters* (Stuttgart: Kröner Verlag, 1975 [11. Aufl. edition]).

45 울리 분덜리히, 「메멘토 모리의 세계: ‘죽음의 춤’을 통해 본 인간의 삶과 죽음」(김중수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24-25. 원제는 Uli Wunderlich, *Der Tanz in den Tod* (Freiburg: Eulen Verlag Herald Gläser, 2001).

46 박홍식, “주검은 왜 춤추게 되었을까: 죽음의 무도의 기원을 찾아서”, in: 서울대학교르네

고 ‘죽음의 무도’ 이미지와 결합된 형태로 완성되어 전 유럽에 확산되고 변화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의 무도’에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죽음의 필연성과 평등성에 관한 텍스트를 동반하여 증폭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47</sup> 그 텍스트들은 죽음에 대한 구약 성서적 본문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무도’의 기원은 13세기 유행했던 라틴어로 된 바도 모리(Vado mori) 시<sup>48</sup>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에서는 인간 모두에게 불가피한 죽음, 그리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한다. 이러한 죽음의 시들은 14세기 이후 이미지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전 지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죽음의 무도’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사실과 원무(圓舞)가 지니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조된다. 그러나 후에 등장하는 ‘죽음의 승리’에서는 갑자기 닥치는 죽음이나 대규모의 재앙, 즉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기근이나 전쟁, 전염병 등 죽음이 만연하고 예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죽음 및 주검에 대한 표현 방식도 발전되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

상스연구소, 『중세의 죽음』 (서울: 산치림, 2015), 31.

47 기요 마르샤이 1486년에 간행한 ‘죽음의 무도’에 삽입된 목판화에 기재된 텍스트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며 그림의 교화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 이는 죽음의 무도라 불리니 남자든 여자든 응당/ 죽음은 신분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용서치 않으니/ 이 거울에서 모두가 읽을 수 있으리, 그도 이렇게 춤추게 되리라는 사실을...” 김준현, 윗글, 41-42.

48 바도 모리 시는 시의 행 시작과 끝에 ‘바도 모리’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라틴어 시이다.  
 나는 죽으러 간다네(vado mori).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불확실할 뿐이라네.  
 나는 죽으러 간다네(vado mori).  
 박홍식, 윗글, 32.

49 14세기 중엽 프란체스코 트라이니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 안에는 죽음에 관한 여러 모

‘죽음의 무도’는 ‘우리 모두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한스 홀바인 2세(Hans Holbein)의 목판화 작품에서는<sup>50</sup> 죽음으로 초대받은 인물들이 완전히 개인주의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들은 각각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상이한 공간에 존재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으며 죽음 또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상의 한가운데로 찾아온다.<sup>51</sup> 1538년 목판화 41점으로만 이루어진 초판과는 달리 1542년에 출판된 재판에서는 각 목판화마다 라틴어 성경 구절과 프랑스어로 된 시가 첨가되었는데 글의 내용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 위해서는 고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함을 권유하는 것이다.<sup>52</sup> 홀바인의 목판화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지상의 흠으로 창조되는 창세기의 창조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또한 두 번째 그림에는 “아담이 이브에게 속아서/ 금단의 과실을 따먹게 되자/ 둘다 죽음의 숙명을 안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필멸하게 되었다”는 설명의 뒷구가 들어있다. 그는 성서적 이해에 기초하여 죽음이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sup>53</sup>

티브들이 결합되어 있다. 윗글, 37-38.

- 50 한스 홀바인에 의해 1538년 간행된 판화집 “예술적으로 상상되어 전아하게 묘사된 이 미지와 이야기로 된 죽음의 양상”(Les Simulachres & HISTORIEES JACES DE LA MORT, AVANTANT elegamment pourtraictes que artificiellement imaginees)에는 41개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다. 황훈성, “메멘토 모리의 문화적 진화: 홀바인 2세의 〈죽음의 무도〉에서 동시대의 ‘비가시적 죽음’까지”, 『영어영문학』 59(1), (2013), 37.
- 51 이근호, “죽음의 무도: 미술적 모티프의 문학적 수용에 관하여”, 『혜세연구』 26 (2011년 12월), 87-89.
- 52 노르베르트 볼프, 『한스 홀바인』 (이영주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6), 41. 원제는 Norbert Wolf, *Hans Holbein* (Köln: TASCHEN, 2006). 1523년-1626년 동안 홀바인은 작은 목판화 연작 시리즈 58점을 완성하였고 그 중 42개를 조각가 뤼첼부르거가 조각하였으며 초판은 목판화 41개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많은 재판과 모작, 그리고 변종 작품들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 53 황훈성, 윗글, 37-38.

홀바인은 이전의 전통적인 죽음의 무도 이미지 대신에 실생활 속의 사람들을 그리고 장면마다 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면서도 유머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54</sup>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죽음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지만 해골의 모양을 한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49번째 그림의 거지 만이 죽음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그림에는 라틴어 성경구절로 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개역개정)” 구절이 달려있다.

또한 ‘늙은 여자’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전도서 구절과 함께 프랑스 시구가 함께 쓰여있고 그것은 공통적으로 고통스런 삶 뒤에 올 확실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melior set mors quam vita* (죽음이 삶보다 낫다)는 것으로<sup>55</sup> 특정 구절이라기 보다는 전도서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한 프랑스 시 또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어렵지만 죽음이 삶보다 낫다고 나는 확신한다.’<sup>56</sup>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전도서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41번째 판화 ‘죽음의 방패’(The escutcheon of death) 옆에도 전도서 VII.이라고 표시된 구절이 씌어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히 죄를 짓지 말라’(Memorare nouiffima, & in aeternum non peccabis)라는 것이다.

54 노르베르트 볼프, 윗글, 44-45.

55 Hans Holbein & Austin Dobson, *The Dance of Death* (London: George Bell & Sons, 1892), 25(xxv).

56 En peine ay uefcu longuement  
Tant que nay plus de uiiure enuie,  
Mais bien ie croy certainment,  
Meilleure la Mort que la uie.  
윗글.

중세 말기 마카브르의 개념을 대표하게 된 ‘죽음의 무도’는 개인과 사회의 세속화에 맞서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며 또 다른 한편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의 평등함을 통해 그 시대의 신분적 질서를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sup>57</sup> 특히 이 시기의 죽음 이해는 히브리 성서의 본문들 특히 비교적 후대에 씌어진 전도서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이해가 나타나며 중세-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사회적, 종교적, 사상적 변화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당대의 문학적, 예술적 작품을 통해 표현되었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고 강조하며 확대해갔다고 할 수 있다.

## 2) ‘바니타스’(vanitas)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sup>58</sup>를 주제로 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또한 ‘바니타스’(vanitas), 즉 ‘인생의 덧없음’<sup>59</sup>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해골과 바니타스 주제의 정물화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북유럽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이자 장르가 되었다. 한순간 아름답게 피

57 박홍식, *유희*, 50-51.

58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에서 무공을 세운 용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에서 그가 교만하거나 영광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 않도록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경구를 노래로 하여금 옆에서 되뇌이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즉 메멘토 모리는 영웅 개인 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도덕심을 일깨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세에 이르면 트라피스트 수도회(1140년 창설) 교단 표어로 채택되어 그 교단 소속 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반복하여 말해야 했다. 엔리코 데 파스칼레, 「죽음과 부활, 그림으로 읽기」(엄미정 옮김), (서울: 예경, 2010), 88. 원제는 Enrico De Pascale, *Death and Resurrection in Art* (L.A.: Getty Publications, 2009).

59 라틴어 vanitas는 vanus(공허한)의 파생명사로 공허, 헛됨, 가치없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특히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16-17세기에 성행했던 예술작품의 경향을 이르는 말이다.

있다가 시드는 꽃, 신선하고 달콤한 맛과 향기를 내뿜다가 썩어가는 과일, 반짝이고 단단한 듯 하지만 쉽게 깨질 유리그릇 가운데 해골이 놓인 수많은 정물화들이 ‘인생’을 말했던 것이다.<sup>60</sup>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홀바인의 ‘대사들’(the Ambassadors)<sup>61</sup>이라는 작품이다. 16세기 초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등 대표적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던 홀바인의 ‘대사들’은 두 명의 프랑스 대사 장 드 댕트빌(Jean de Dinteville)과 조르주 드 셀브(George de Selve)의 초상화인데 그 당시 제기되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sup>62</sup> 그들의 화려한 의상과 장식, 배경 외에 두 인물 사이에 놓인 다양한 사물들은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 즉, 천구의, 실린더형 나침반, 사분면, 십면 해시계, 토르케툼(torquetum) 등의 천문학 관련 기구들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시간은 흘러간다’ 혹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뉜셈의 예를 보여주는 산수책, 분할 컴퍼스, 그리고 루터의 찬송가집은 당시 교회의 분열을 말한다. 즉 가톨릭과 루터주의의 대립 상황, 영국의 헨리 8세와 로마 가톨릭의 대립상황을 음악, 수학, 천문학, 기하학 등 인문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sup>63</sup>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 인문주의자들의 결론은 바로 두 인물 중간에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표현된 해골이 전해준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

60 서성록 외, 『종교개혁과 미술』 (서울: 예경, 2011), 86-87.

61 원제는 ‘장 드 댕트빌과 조르주 드 셀브’(Jean de Dinteville and Georges de Selve, 1533).

62 이가은, “한스 홀바인의 초상화 연구”, in: 박성은 외, 『서양 미술사 연구』 (서울: 다빈치, 2008), 135.

63 윗글, 137-138.

은 16-17세기 바니타스를 주제로하는 회화에서 책, 악기, 꽃, 모래시계, 불 꺼진 양초 등과 함께 등장하여 모든 현세의 노력이 헛된 환상이며 곧 먼지로 변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홀바인의 이 초상화에서도 해골은 인간의 모든 화려함, 위엄, 지적 능력 등이 다 부질없는 것이며 죽음은 그러한 것들을 비웃고 있다는 전형적인 메멘토 모리 모티브이다. 즉 대사들의 화려한 옷이나 천문학, 기하학, 음악 등의 위대한 학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전도서의 ‘헤벨’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홀바인은 해골은 왜곡된 상으로 표현하여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었는데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의 해골은 죽음이 인간의 삶에서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그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sup>64</sup>

이와 같은 인생의 덧없음, 헛됨, 즉 헤벨과 죽음의 상관관계는 중세시대에 목판화나 벽화 등 미술작품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여기에 죽음과 관련된 성서 본문과 죽음에 대한 간단한 격언인 에피그램(epigram) 등의 텍스트가 덧붙여지기도 하였다.<sup>65</sup> 이것은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매체성의 관점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호매체성은 매체 간의 가교를 말하는데 즉 문학, 음악, 춤, 미술, 언어 등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소통체계가 서로 교류하거나 하나로 통일되는 매체 간의 가교를 의미하는 것이다.<sup>66</sup> 즉, 성서 텍스트와 마카브르 이미지라는 서로 다른 매체가 ‘죽음’이라는 주제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매체 사이의 경계가 와해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64 윗글, 138.

65 울리 분덜리히, 윗글, 130-131.

66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2000년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 (2012년 2월), 257.

## 5. 나가는 말

죽음을 전제로 한 삶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전도서의 본문들 그리고 중세 유럽의 ‘죽음의 마카브르’ 작품들은 특별한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들이 매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화되는 과정과 서로 영향을 끼치며 전승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현재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된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특징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헤벨’과 죽음의 주제에 관한 성서 텍스트, 그리고 일정한 시대와 문화 속 이미지 작품들과의 상관관계와 종교적 의미 등을 상호매체성과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함으로써 성서 본문의 문자화된 메시지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당시의 청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학문 융합적인 주제의 연구 결과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죽음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며 죽음과 관련된 의례와 교육 등 광범위한 죽음문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전제가 되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문학적, 철학적, 예술적 이해와 연결하여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in: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내러티브와 매체」(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3-42.

- 구자용,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구약논단」 18권 1호 (2012년 3월), 82-104.
- 김동혁,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어법과 위약어법 연구: ‘죽음’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3호 (2024년 9월), 92-119.
- 김준현, “기요 마르상의 ‘죽음의 무도’ 연구: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0호 (2013년), 35-74.
- 김진명, “운보 김기창의 〈물 위를 걷다〉와 성경본문의 미학적 성서해석: 마 14:22-33, 출 3:14, 시 2:7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 39집, 269-294.
- 김진명, “구약과 신약의 만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기(마 2:1-23)에 관한 연구: 이연호의 작품 〈베들레헴 위 헤롯 군인들의 군화...〉(1962)와 신약(마 2장)과 구약 본문들(미 5:2, 삼하 5:2, 호 11:1, 렘 31:15)에 관한 미학적 성서해석”, 「선교와 신학」 63 (2024), 141-169.
-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권 5호 (2018년), 39-66.
- 김학철,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서울: 비아, 2022)
- 박영준, “전도서의 종말론적 개념에 대한 연구: 추가본문의 미쉬파트(심판)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1호 (2012년 3월), 105-128.
- 박홍식, “주검은 왜 춤추게 되었을까: 죽음의 무도의 기원을 찾아서”, in: 서울대학교 르네상스연구소, 「중세의 죽음」 (서울: 산처럼, 2015).
-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2월), 10-32.
- 서성록 외, 「종교개혁과 미술」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11).
- 안근조, “헬레니즘 시대의 지혜의 변천-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3호 (2015년 9월), 99-124.
- 안선희, “장례의식을 넘어 죽음의례로”, 「신학과 실천」 63호 (2019년), 7-37.
- 왕대일,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 윤성덕, “고대 서아시아 지혜문학의 분류법: 〈주인과 종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양 고대사연구」 69 (2024), 7-31.
- 이가은, “한스 홀바인의 초상화 연구”, in: 박성은 외, 「서양 미술사 연구」 (서울: 다빈치, 2008), 109-151.
- 이근호, “죽음의 무도: 미술적 모티프의 문학적 수용에 관하여”, 「헤세연구」 26호 (2011년 12월), 81-104.
- 이은애, “히브리 성서에서의 죽음과 장례: 존재와 관계에 대한 기억”, 「구약논단」 22권 2호 (2016년 6월), 132-165.

- \_\_\_\_\_, “입다의 딸과 이피게네이아: 상호매체성으로 읽는 소녀의 희생”, 『구약논단』 28권 4호 (2022년 12월), 159-184.
- 이중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권 (2021년 6호), 71-93.
-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2000년 이후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호 (2012년 2월), 255-286.
-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도서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권 3호 (2010.9), 194-215.
- 최종원, “복사셈어문학과 비제사장계 문학사 관점에서 바라본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30권 1호 (2024년 3월), 209-248.
-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27권 3호3 (2021년 9월), 72-103.
-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2월), 33-56.
- 황훈성, “메멘토 모리의 문화적 진화: 홀바인 2세의 〈죽음의 무도〉에서 동시대의 ‘비가시적 죽음’까지”, 『영어영문학』 59권 (1), (2013년), 25-50.
- Assmann, Aleida, 『기억의 공간』 (변학수, 채연숙 옮김), (서울: 그린비, 2014). 원제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 der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H. Beck, 2010<sup>5</sup>).
- Assmann, Ja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H. Beck, 2007<sup>6</sup>).
- 데 파스칼레, 엔리코, 『죽음과 부활, 그림으로 읽기』 (엄미정 옮김), (서울: 예경, 2010). 원제 De Pascale, Enrico, *Death and Resurrection in Art* (L.A.: Getty Publications, 2009).
- 에스테스, 다니엘,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원제 Estes, Daniel J.,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Fox, Michael V., “The Meaning of Hebel for Qohelel”, *JBL* 105/3 (1986), 409-427.
- Hengel, Martin, 『유대교와 헬레니즘 ②: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헬레니즘 만남 연구』 (박정수 옮김), (파주: 나남, 2012). 원제, Hengel, Martin,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 bis zur Mitte* (Tübingen: Mohr Siebeck GmbH & Co., 1988 [3., durchgesehene Auflage]).
- 요한 호이징가, 『중세의 가을』 (최홍숙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원제

- Huizinga, Johan, *Herbst des Mittelalters* (Stuttgart: Kröner Verlag, 1975 [11. Aufl. edition]).
- Kutschera, F., “Kohelet: Leben im Angesicht des Todes”, in: Schwienhorst-Schönberger, L. (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머피, 롤랜드 E., 「전도서」 (김귀탁 옮김), WBC 주석 (서울: 솔로몬, 2008). 원저 Murphy, Roland E., *Ecclesiastes*, WBC 23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 프리처드, 제임스 B., 편집,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번역), (서울: CLC, 2016). 원저 Pritchard, James B. (ed.), *The Ancient Near East – An Anthology of Texts & Pictur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링그렌, H. /침벌리, W., 「잠언/전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원저 Ringgren, H., /Zimmerli, W., *Sprüche/Predig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 순더마이어, 테오, 「미술과 신학」 (채수일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원저는 Sundermeier, Theo, *Christliche Kunst – weltweit. Eine Einführung* (Frankfurt: Otto Lembeck, 2007).
- 빌라데서, 리차드,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 (손호현 옮김),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2001). 원저 Viladesau, Richard, *Theological Aesthetics –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볼프, 노르베르트, 「한스 홀바인」 (이영주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6). 원저 Wolf, Norbert, *Hans Holbein* (Köln: TASCHEN, 2006).
- 분덜리히, 울리, 「메멘토 모리의 세계: ‘죽음의 춤’을 통해 본 인간의 삶과 죽음」 (김중수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원저 Wunderlich, Uli, *Der Tanz in den Tod*, (Freiburg: Eulen Verlag Herald Gläser, 2001).

#### 검색어

전도서, 헤벨, 헛되다, 죽음, 죽음의 무도, 마카브르

[ ABSTRACT ]

## Correlation between Text and Image about *Hebel* and Death

Eun-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Death can be said to be the basis for the declaration in Ecclesiastes that “everything is in vain.” Here, “all” is not a universal category but refers to the realities of the world that human beings face, such as joy, human activity, wisdom, work, and wealth, all of which are in vain. This is because death is an inevitable thing that comes to everyone, and both the wise and the foolish will die, and it is the same for both humans and animal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death confirms the *hebel* of life, that is, its futility, irrationality, and worthlessness.

The understanding of death in Ecclesiastes can be summarized as the inevitability and universality of death. Ecclesiastes shows that not only are humans inevitably mortal, but that all humans are equal in the face of the reality of death (Eccl. 9:2-3). If Ecclesiastes 8 claims that compensation theology and causal retribution, which are universal principles of wisdom literature, do not apply to everything in the world, then Ecclesiastes 9 asserts that there is still fairness in the world and that everyone is equal in the face of death because everyone ultimately returns to death.

The inevitability and universality of death, which appear as the basis of ‘*hebel*’ (vanity) in Ecclesiastes, were also accepted and applied to the Macabre phenomenon of death in the turbulent European society of the

www.kci.go.kr

late Middle Ages. The influence of Ecclesiastes' *hebel* on the Macabre of death can be said to be a visual expression of the original teaching of Ecclesiastes to be grateful and enjoy the portion of life given before death.

In the 'Macabre of Death,' death was now personified and combined with images, and it can be seen that it spread, changed, and developed throughout Europe. In addition, the 'Dance of Death,' which represented the concept of the Macabre in the late Middle Ages, accompanied by texts on the inevitability and equality of death, played a role in religiously and socially awakening the inevitability and fairness of death against the secularization of individuals and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criticism of the status quo of the time through the equality of death that comes to everyone, realizing the fundamental fact that all humans beings die. In particular, the understanding of death in this period is close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life that appears in the texts of the Hebrew Bible, especially in the book of Ecclesiastes, which was written relatively later. The medium of cultural memory, which has a formal framework such as text and pictures, allows members of the community to share and empathize with the past beyond the individual level, because unlike historical records, it acts as a comprehensive medium of empathy that includes subjectivity and emotion.

key words

Ecclesiastes, hebel, vain, death, dance with death. macabre

투고일: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